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자녀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동 우 컬럼

선불(先拂)신앙

건축업을 하는 인천예수중심교회의 장로는 항상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물질을 심는다. 일을 이룬 후에 감사예물을 드리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는 먼저 심는 남다른 법을 깨달은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떨까. 몇 해 전인가 나는 그가 건축부지로 확정한 허허벌판 갈대숲에 가서 두 손을 들고 땅을 축복했었다. 이런 곳에 건물을 지어도 될까, 분양될까 할 정도의 위치였지만, 근사한 건물이 완공되었고, 당연히 100% 분양되었다.

전주 혁신예수중심교회 소속인 또 다른 장로 역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일을 진행하는 믿음의 소유자다. 그는 예전에 기도원 공사를 할 때 설계도면만 보고 미리 많은 벽돌을 기도원에 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 그가 오픈한 호숫가 카페에 다녀왔다. 터를 닦기 전에 그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 그가 먼저 예물을 드린 믿음을 보시고, 이 종이 축복한 대로 이뤄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어찌 그를 외면하실까. 그 곳은 지금 국내 최대, 국내 최고의 카페요, 명소가 되었다.

예전에 나는 영어통역관인 임무수행 목사에게 ‘통역하고 돈 받을 생각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통역하라’고 가르쳤었다. 당연히 나는 집회 때면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시작한다.

선불신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내가 목회 전, 시멘트 대리점을 할 때 시멘트 파동이 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선불을 낸 자들에게 파동나기 전 단가로 먼저 시멘트를 보냈었다. 상황과 무관하게 선불을 받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 아니실까.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 그가 먼저 소 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과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보너스로 주셨지 않았는가. 이 두 장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자들이 선불신앙을 배워 행하고 있다. 듣고 행하는 그들에게 나는 감사할 뿐이다. 선불신앙을 통해 복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우크라이나를 위해 합심기도 합시다

유럽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친(親)서방 정책과 유럽연합 가입 시도,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영향력 확대를 꺼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對)중국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처지로서 국제이슈에 다각적으로 개입할 능력이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도 주요원인이다. 러시아로서는 미국이 대(對)중국정책에 빠져있을 때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우크라이나를 위해, 또한 우크라이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모두 합심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쟁 없이 평화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에서 절박한 기도를 요청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지난 2000년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최영석 목사를 통해 방문하게 된 동유럽 국가이다. 1980년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페레스트로이카)으로 소련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었던 틈을 타 1991년 우크라

포니아 주 및 워싱턴 주의 러시아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지난 2011년 우크라이나 드네프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목회자 세미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웃 벨라루스까지 복음의 길을 열어서 2017년에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세계 선교의 길이 막혀있는 실정이지만,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끈다는 목사님의 꿈과 비전은 멈춘 적이 없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세계로 나갈 것이다. 악한 마



2011년 우크라이나 목회자 세미나

의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서방국가와의 완충역할을 해오던 우크라이나의 친(親)서방행보를 러시아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국제정세를 반영하듯 연일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주가가 연일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국제유가는 급등하는 추세이다.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에 이제는 전쟁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님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먼 나라의 일이라 생각지 말고 모든 교역자 및 성도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합심기도할 것을 촉구하셨다.

“사랑하는 교단 목회자와 성도여러분,

이나는 독립을 선포했고, 이를 시작으로 소비에트연방의 해체가 가속화되었다.

우리가 처음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공산주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경제상태는 매우 열악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슬라바 목사(당시 전도사)를 통역관으로 준비하셔서 복음의 길을 여셨다. 고려인 3세인 그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는데, 최영석 목사의 지시로 우리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한국어를 배웠다고 한다. 오로지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며 한국어를 배운 셈이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독일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미국 서부 캘리

키는 감염병과 전쟁이라는 무기로 지구촌을 위협하며 복음의 문을 닫으려 획책하겠지만, 하나님이 여신 문은 닫을 자가 없다. 대해(大海)를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섭리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는 드네프로예수중심교회를 비롯하여 예수중심세계하나되기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다수의 목회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냈듯, 우리가 힘과 뜻을 모아 기도하면 우크라이나에도 반드시 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합심기도하자.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예수중심신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모집기한 : 2022년 2월 21일 면접일시 :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면접 장소 : 노량진 교육관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4:10~14)



봄이 오는 것을 겨울이 막을 수 없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목회를 시작하기 전 평신도이던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마28:18~20)라는 말씀을 이루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최고의 연장을 줄 테니 나보다 큰일을 해봐. 최고의 무기를 줄 테니 마음껏 해봐.’ 하신 것입니다.

해외집회를 할 때면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입니다. 2중, 3중으로 통역을 해야 하고, 또 예수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구교의 습성에 젖어 있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심령이 냉랭한 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집회를 성공하는 줄 압니까? 그들에게 먼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확 달라집니다. 눈이 동그해지고, 귀가 쫑긋해집니다. 그리고 닫혔던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저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함이 일어납니다. 발이 잘 갈아졌을 때 저는 말합니다. “영상으로 본 것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도록 회개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지요. 귀신이 떠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많은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2001년 칠레집회를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설교를 길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뿐입니다. 그것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충분히 목도했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도토리 속에 참나무 있고 사과씨 안에 사과나무 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곧 데리러 오십니다.”라고 전도하다가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믿게 해보세요.”라고 상대가 말하면 멈칫, 쭈뼛하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여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찌 보여주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주의 종들이 설교는 너무 잘하는데, 신학적인 논리는 완벽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 말을 안 믿는 겁니다. 의사는 의술로 의학을 보여주고, 과학자는 실험을 통해 과학을 증명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 목사 말에는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사람들은 봐야 믿습니다. 증명이 되어야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4:48)고 말씀하시고 몸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고로 시각적인 감동이 청각적인 감동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라디오로 소리만 듣는 것보다 텔레비전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면 더 신뢰가 가듯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믿기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14:11)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그 일’, 곧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땅을 축복하니 그 땅이 복을 받고, 의사가 손을 뻗 병을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니 병이 낫고, 가난한 자를 축복하니 부유케 되는 것을 본 자들이 스스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바로 21세기 목회에 성공하려면 ‘보여주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요즘은 증거가 필요하고, 증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처럼 귀신

을 쫓고,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고, 병어리를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권능을 장착해야 하는데, 이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빌립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14:11)고 하셨습니다. 도토리 안에 참나무가 있고, 사과씨 안에 사과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0문도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한 것이고, 12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마10:1). ‘그 일’은 예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더욱이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성령충만을 입는 길, 성령을 소멸치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봅시다. 여기에는 귀신들려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제자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자 상심에 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저는 제자들에게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다. 괜히 이 신학 공부, 저 신학 공부해서 머리만 커지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늘 말합니다. 학문에 뛰어들었던 바울도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2:4~5)고 고백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보니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성령충만을 입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똑배기보다 장맛이 좋아야하니까요.

청각적인 감동보다 시각적인 감동이 크다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타나며, 그 권능으로 세상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행1:8). 사도행전 4장 16절에도 “저희(베드로와 요한)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행4:16)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이 원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만, 기도가 힘드니까 안 해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4시간 내지는 7시간 기도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불이 붙어야 남을 붙일 수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남을 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지요. 예수님도 종일 능력을 행하시고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받은 연장이 녹슬고 맙니다. 기도로 그것을 갈아야 언제든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염동철한이 길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곧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무장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물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은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그 천국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 생각이 없고 수동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다.

어찌되겠지 하며 삶을 방기(放棄)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삶을 개선하고 문제를 극복하려는 생의 의지로 가득한 사람이다.

삶에 분명한 목표를 두는 사람이다.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다.

인생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입술로 시인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기초이다.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 아닌가.

목사님께서 ‘기도가 떠난 사람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며 누누이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내 일생은 기도였다’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수많은 인생의 파고를 넘어온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수많은 경험담이 기록되어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간증하고 있다. 모세가 기도하여 홍해를 가르고, 기도하여 바위에서 생수를

내고, 기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한 역사가 생생히 기록되어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여 이스라엘 전 민족을 살린 사건, 다니엘이 기도하여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하여 불구덩이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온 사건, 느헤미야가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재건한 사건,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고, 머리가 가랑이 사이로 들어갈 만큼 간절히 기도하여 3년 6개월이나 계속되던 가뭄을 끝장낸 사건 등 정말 다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한 간증들이 수두룩하다.

어디 성경뿐인가?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 뿐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살아서 예배 때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걸어온 길에 기도로 일으킨 기적의 역사들, 기도하여 비를 멈추고, 기도하여 태양을 가리고, 기도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기도하여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 역시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도, 지면도 부족하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진실을 아뢰는 것이기에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안 될 일이 무엇일까? 꿈을 가지고 기도하자. 포기하지만 않으면 시간이 걸릴 뿐 기도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내가 목사님을 통해 배운 노하우요, 유산이며 내가 세대를 이어 전할 비밀 중의 비밀이다. 할렘루아!

Henry Han

henry8829@naver.com

:: 성경에세이 ::

‘Yes, Sir(예썰)’

여보게!

군대 시절 생각나나? 우리 군 생활할 때는 상사들의 갑질이 심했었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질 때도 많았지. 그런데도 우리는 “왜요?” 라거나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지. 상사의 명령이 법이었으니까.

목회 38년, 내 삶을 돌아보니 군대 시절처럼 나에게도 오직 ‘예썰’만 있었더군. 군대 상사처럼 말도 안 되는 명령은 없었지만, 힘에 겨운 말씀도 있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었지만 나는 오직 ‘예썰’ 했었네.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자로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했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알지? 예수님과 어머니가 어느 혼인잔치에 가셨네.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지.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집 하인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행하라고 했네. 예수님은 하인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하셨네. 하인들은 “왜요?”라고 묻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네. 다시 예수님은 그 물을 연회장에 내다주라고 하셨지. 하인이라고 왜 생각이 없었겠나. ‘말이 되나. 술 대신 물을 내가라니?’ 이런 생각

을 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었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이 말씀을 내가 늘 가슴에 두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예썰’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지. 성경에는 ‘네가 순종하면’이라는 조건형 말씀이 많은. ‘그리하면 내가 도울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책임진다고 하셨지.

연회장에 술을 가져가니 사람들이 “아니,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술을 주고 취하면 나쁜 술을 내오는데 여기는 나중 술이 더 좋네.”라고 했네. ‘예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지.

여보게!

그런 복을 받고 싶지 않나?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의문도 표하지 말고, 토도 달지 말고, 무조건 ‘예썰’ 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네의 삶에 나타날 걸세(고후 1:18-20).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고후 1:19).

朋友

지금이 기회이다



2월 10일, 노량진 교육관에서 이시대 목사님께서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교역자들을 교육하셨다.

“드디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 마침내 국가의 방역 통제가 실질적으로 해제된 것이다. 우리는 목사님께 ‘법 위에 자지 말라’는 교육을 받아왔기에 그동안 국가가 정한 법 안에서 행동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왔다. 규제가 풀렸다. 나는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지금이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만일이 기회를 놓친다면, 이때에 복지부동한다면 이 상태로 굳어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확장지향적하시다. 예수님은 12제자에서 70인의 제자로, 120문도에서 3천명의 제자로, 그리고 믿는 모든 자로 제자를 확장하셨다. 우리 목사님도 1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해서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셨다. 자고로 복음은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기에 그렇다.

어느 교구 전도사가 이런 상담을 해왔다. 자기 교구가 주일예배에는 45명, 수요 저녁예배에는 24명 출석하는데, 자기 교구에 25인승 차량 하나가 있으니 수요일에

는 그것 하나만 운행하고, 주일에는 동일한 차량을 하나 더 운행하면 굳이 대형버스를 운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비용절감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해서 네 교구가 부흥할 것 같으냐?’고 되물었다.

교구에 성도가 없다고 두 교구를 합쳐놓으면 그 교구가 부쩍 성장할 것 같은가? No! 하나님은 축소의 법칙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급선무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지침을 마련했다. 첫째, 6월 말까지 원상복귀를 위해 기도에 힘쓰되 매월 하루 정해진 시간에 금식하라. 둘째, 4월 말까지 수요예배에 50% 이상 참석케 하라. 우리 교회는 철야예배로 부흥의 기쁨을 이뤘고, 성장해온 교회다. 내가 통계를 내본 결과, 철야예배 참석률이 부흥과 비례했다. 그러니 수요예배 참석을 독려하라. 셋째, 1시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조건 전도사는 기도처에 있어야.

이대로 고착화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일어날 것이냐,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원상복귀 후에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보이자.”

인생은 타이밍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흥과 성장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행동하는 자들이 되자. 신묘수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자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3년이란 세월을 싸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접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식당은 이런 상황 중에도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문구사업의 거두가 된 모나미 볼펜 창업자 송삼석 장로님은 6·25 전쟁 이전에는 연필 공장을 했었다. 그런데 6·25 때 미군들이 볼펜을 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침을 발라가며 연필을 쓰는데, 미군들은 침도 안 발라도 잘 써지는 볼펜을 쓰는 것을 보고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연필 공장을 볼펜 공장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의 기본원칙 세 가지를 세웠다. 첫째는 주일 성수이요, 둘째는 교회 봉사를 우선하는 것이요, 셋째는 온전한 십일조를 하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런 경제 속에서도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듯 사업이 성장했다. 자신이 정한 신앙의 기본원칙을 따라 사업을 했더니 엄청난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휼한 그는, 볼펜에 153이라는 트레이드마크를 새겨 넣었다. 모나미 153볼펜을 생산하는 모나미 볼펜은 오늘날까지도 건재하고 있는 장수기업이다.

‘우리!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자.’ 이것은 2022년 예수중심교단의 슬로건이다. 무슨 일에도 전심전력하면 성공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식당 사장님에게 물었다.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호황을 누리냐?’고. 그의 대답인즉 ‘우리 식당에 오시는 손님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식재료와 요리, 그리고 서비스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니 되더라는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은 내가 지금에 있는 것은 ‘대총이란 군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도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자. 그리하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딸 것이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벌써 10년

10년 전,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公)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대학부 청년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딱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었거든요. 혼자 설교 듣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성경 읽고, 그런 방식이 저는 좋았지만 어쩐지 마음 한편에는 너무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고, 누군가는 교사로 봉사하고, 누군가는 음식으로 봉사하고, 누군가는 안내원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반면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언가를 하기엔 단체 활동을 좋아하지 않고 낮 가림도 있던 터라 낯선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봉사하는 건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가대원으로 봉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엄청난 음치예요. 높은 음역대는 물론이고 중간 음역대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매번 립

싱크를 해야 했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값지고 소중한 일이었지만, 목소리를 내어 찬양하기보다는 입만 뽕뽕긋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젠 나의 달란트가 아니라는 생각에 1년 정도 하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스물아홉 살이 되었고 그 즈음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저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데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해 어느 주일 예배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장로님께서 안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새로운 안내가 있었습니다. 문서선교부에서 글 쓸 사람을 모집한다고요. 10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안내였지만, 저는 그것이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카피라이터 3년 차였고,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글쓰기가 저의 달란트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문서선교부를 담당하시는 집사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교회신문에 써온 글쓰기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지면에 글을 쓸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설교 중에 깨달은 것은 꼭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회개하는 날이 많지만, 나날이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글 솜씨를 뽐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게 해달라고요. 한 글자 한 글자 기도하며 써왔고, 글을 쓰면서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가득해 10년 동안 많은 위로와 용기,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8). 요사이 저는 주님께 물질적인 것을 많이 구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이뤄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봉사를 소망하는 마음을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십 대 후반이었던 제가 삼십 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에도 오십 대에도 계속 이 지면에 글을 쓸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덕을 세우며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교회신문을 읽어주시는 성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노후대책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살던 나는 일찍이 노후대책의 필요성을 깨달아 연금저축과 각종 보험을 무리하게 들었다. 무리해서 든 저축과 보험 때문에 신경은 날카로워져서 그날그날 매출에 일희일비했고, 목표매출액에 도달할 때까지 틈틈이 새우잠을 자며 일주일에 2~3일은 24시간 풀가동했다.

그러나 갱년기가 찾아오면서부터 육체의 한계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나른하고 찌뿌듯하고 때론 나 자신도 망각한 듯 몽롱함이 찾아왔고, 너무나 힘든 나머지 속히 천국에 가고픈 심정이 되곤 했다.

예금을 해지할까 생각도 했지만, 해지했을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에 중도에 멈출 수가 없었다. 나름 긍정적인 방법을 모색해 행복호르몬 생성을 유도하며 행복지수를 올리려 노력했다. ‘고생은 황금이다.’, ‘내일은 생각 말고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자.’며 수천 번 되뇌곤 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전혀 상상이 못할 괴할 길로 인도해주셨다. 몸이 불편했던 언니와 병환 중이던 남편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쉼을 허락하신 것이다. 내 어깨를 짚주르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벗겨주셔서 비로소 곤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다들 힘겨워한다. 그러나 힘에 겹다고 하지 않는다면 노후는 어찌 될까.

일을 벌여놓으면 뛰게 되어 있다. 이리저리 계산하다보면 절대 시도할 수 없다. 일단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더 뛰고, 더 열심히 달리게 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도우신다.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자는 노후대책을 하지 않는 자이고, 더 어리석은 자는 사후대책을 하지 않는 자라고. 또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라고도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현명한 자가 될 것인가!

추성숙 집사

Good News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로서 명품 드레스를 만들었던 인도의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의 집에는 다양하고 비싼 옷과 신발, 장신구가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의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잔고가 있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 있다. 나는 특급호텔을 바꿨다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 다니고 있다...’ 이런 장문의 메시지를 남긴 이틀 후에 그녀는 삶을 마감했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기록한 전도서의 도입부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부귀영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며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의 말미에 죽음을 앞둔 솔로몬이 진솔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들 앗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12:13~14).

죽은 뒤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지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한 탐험대가 유적을 조사하다가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토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굴에서 탐험대가 발견한 것은 끝도 없이 쌓여있는 황금과 두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탐험대장은 이 사람들이 황금을 쓰지도 못하고 모으기만 하다 죽었는지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론해냈습니다.

황금을 캐기 위해 온 두 사람은 오래된 토굴에서 금을 발견했고, 한동안 금을 캐며 토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렸고, 앞으로 먹을 식량도, 다가오는 겨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한 때는 이미 겨울의 한복판에 와

있었고, 식량도 모두 떨어진 채 땀감도 준 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얕은 데 덮친 격으로 눈보라가 몰아치며 쌓인 눈이 토굴을 막아버렸고, 이들은 갇힌 채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쓰고도 남은 황금을 발견했지만, 죽음 앞에서 황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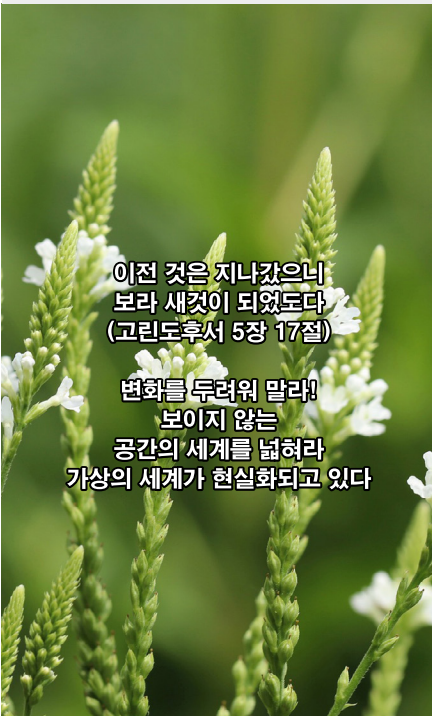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황금’은 그저 돌덩이에 불과하고, ‘소금’은 언제나 황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탄생과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합니다. 즉 ‘지금’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삶이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성령충만 해야 합니다. 지금 전도해야 하고, 지금 봉사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지, 천천히 하지.’ 하다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꼴이 됩니다.

또한 지금이 사랑할 때요, 지금이 효도할 때요, 지금이 공부할 때요, 지금이 노력할 때요, 지금이 운동할 때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능력 밖이고, 내일은 언제나 내일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보다 귀한 ‘지금’을 헛되이 허비하지 마시다. 지금이라는 기를 위해 미래가 서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변화를 두려워 말라!
보이지 않는
공간의 세계를 넓혀라
가상의 세계가 현실화되고 있다